

광주 복구에도 달빛어린이병원 문 연다

상반기 중...시, 광산구·북구에 공공심야약국 2곳도 추가키로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 의료비용·시간 절약 등 의료 지원 확대

광주시 복구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문을 연다. 공공심야약국도 추가로 확충돼 심야시간대 지역민들의 의료 지원이 확대된다.

의정갈등이 1년째 이어지면서 독감 등 호흡기 질환까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광주시와 북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광주시 복구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지정한다.

시는 현재 북구지역 병원에 한해 달빛어린이병원 공모를 받고 있다.

아동 수에 비해 북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다는 점에서 복구 신설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다. 광주시 자치구별 아동(만 18세 이하) 현황을 보면 광산구가 7만 982명, 북구가 6만 556명, 서구가 3만 9346명, 남구가 3만 2967명, 동구가 1만 3316명으로 광산구에 이어 북구가 가장 많은 수의 아동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광주에서는 남구 광주기독병원과 광산구 광주센트럴병원 등 2곳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집에서 가깝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응급실보다 적은 비용으로 소아 경증환자에게 전문 소아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광주지역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 2023년 9월 광주시 남구 광주기독병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평일에는 오후 6시, 주말에는 오전 8시 30분(일요일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자정까지 운영되는 방식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0명이 야간·휴일에 진료를 본다. 지난해 5월 28일에는 광산구 광주센트럴병원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됐다.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진료비용이 1~2만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응급실 진료 비용이 10만원에 달한다는 점과 비교된다. 또 아동병원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오전 6시부터 번호 대기표를 뽑는 이른바 '오픈런'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 부모들에게 의료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이 인기의 비결이다.

광주기독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이래 지난해 12월 기준 1년여간 하루 평균 29명이 찾았으며 휴일에는 113명이 방문했다. 광주센트럴병원도 지난해 7개월간 2만 728명이 진료를 받았다.

광주기독병원은 2025년 7월 17일까지, 광주센트럴병원은 2026년 5월 27일까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된다.

광주센트럴병원은 올해 1월부터 운영시간을 주 46시간에서 56시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광주지역 공공심야약국은 동구1개소, 서구

1개소, 남구 2개소, 북구 1개소, 광산구 1개소 등 총 6개소가 있다.

광주시는 광산구 센트럴병원과 북구 소재 아동병원에 2곳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심야약국은 365일 연중무휴 운영으로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광주시는 공공심야약국 공모 약국에 한해 심야시간대 근무 약사 인건비(시간당 4만원)를 지원한다. 또 기존 5개소에 대해서 인건비를 3시간에서 4시간으로 1시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2020년 2개소를 시작으로 시범운영돼 왔다. 올해 4억 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된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국민들의 외침 8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이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의 13차 광주시민총결기대회에 참석해 음악에 맞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서 탄핵 찬·반 집회...보수 유튜버 지역 비하 발언 논란

집회 시간 달라 물리적 충돌 없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공간인 금남로와 5·18민주광장에서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보수 유튜버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 노골적인 지역 비하 발언을 쏟아내자, 광주시민단체는 '불법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세력'이라고 직격했다. 집회시간이 겹치지 않아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무등빌딩 앞에서 '계몽 토크쇼'를 주제로 한 보수 유튜버 안전권씨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5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돌아와요 윤석열', 'STOP THE STEAL' 'NO CHINA'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광주 시민들에게 "계엄령은 계몽령이다",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안씨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권

한 행사였으며, 탄핵 소추 자체가 위법"이라며 "내란을 일으킨 것은 윤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씨는 광주시의 5·18민주광장 사용 불허에 불만을 표시하며 "그러니까 전라도가 다른 지역에 육을 먹는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전남 경계에 장벽을 세울 것" 등의 지역 비하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광주 시민들은 안씨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운전자들은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인근 5·18민주광장에서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이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주최측 추산 500여명의 광주시민들이 현재의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과 내란세력 엄벌을 촉구했다.

광주비상행동은 앞선 보수집회에 대해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를 더러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라며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며 지속적

으로 내란을 선동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미경 광주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은 끝없는 궤변과 헛소리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내란 세력은 그를 비호하며 온갖 왜곡과 조작으로 극우세력을 선동하고 있다"며 "오는 15일 열리는 제14차 집회에는 내란 동조자들이 문화전당과 금남로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게 모두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오는 15일에는 보수 성향 종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 측이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집회에는 최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거나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등 극우 단체의 주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게시해 논란을 빚은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가 신고한 광주 집회 참석 인원은 1000여명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AI 디지털 교과서 학교 자율 선택

광주교육청, 희망 학교에 구독료 전액 지원...전교조 "환영"

광주시교육청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선정을 일선 학교의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 희망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교과협의회 등 교원 의견을 수렴해 선정심의안을 작성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 학년은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며, 과목은 영·수·학·정보이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선택하려면 기존 서책형 교과서 선정 절차에 준해 실시해야 하지만,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까지 거칠 필요는 없다.

일선 학교의 디지털교과서 선정 절차는 이달 말일까지 마치도록 했으며, 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오는 14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1학기 시작 전 선정을 완료하고 희망학교에 대해서는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

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교육청 자체 방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광주시교육청의 AI 디지털 교과서 학교 자율 선택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광주시교육청이 2025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선정을 희망하는 학교와 학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은 교육 개악을 바로잡고 잘못된 교육정책들을 올바르게 하는 계기가 되어 한다"며 "앞으로도 시교육청이 현장 의견을 잘 청취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법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 상태.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동장군' 한풀 꺾이나

차차 맑아지고 낮기온 올라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눈과 함께 맹위를 떨치던 동장군(冬將軍)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0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에 0.1cm 안팎의 눈이 흩날린 후,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9일 예보했다.

11~12일에는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mm 가량 비가 내리겠다.

영하권에서 머물던 기온은 점차 오르겠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6~영하2도·낮 최고기온은 2~5도,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9~영하2도·낮

최고기온은 6~9도에 분포해 평년 기온(최저 영하5~0도·최고 5~8도)을 회복하겠다.

11일 오전까지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아침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11일 오후부터는 남해상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이 불면서 서서히 기온이 오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황인 눈이 녹았다 새벽 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을 나타내는 곳 있겠으니 저속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